
 국토교통부	<h1>보도 설명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0. 10. 30.(금) 총 3매(본문2 참고1)	
국토교통부	건설산업과	담당자	• 과장 김광림, 사무관 나은중, 주무관 임대한 • ☎ (044) 201-3539, 3546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서해 배타적 경제수역(EEZ) 골재채취가 시작됩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(EEZ)* 골재채취에 대한 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.

*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

- 바닷모래는 2008년부터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수역(EEZ)의 골재채취를 통해 공급되었으나, 서해 EEZ는 2018년 12월, 남해 EEZ는 2020년 8월에 골재채취 기간이 만료되었다.

- 이와 같은 바닷모래 공급중단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*과 해양수산부 협의**를 거쳐 군산시 어청도 서쪽 26km 부근의 서해 EEZ 해역을 신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('20.8)하였다.

* 정부와 인근 지역 어민대표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개최('20.4~5)

** 해역이용협의·해양공간적합성협의('19.5~20.7)

- 최종적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*를 완료('20.10)하여 서해 EEZ 골재채취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.

*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바다(공유수면)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경우 관리청과 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

- 서해 EEZ 내 골재채취단지에서는 앞으로 5년간 3,580만㎥(연 전국 골재수요량의 3%)의 바다골재를 채취할 예정으로, 수도권 등 건설 현장의 골재 수급 여건이 원활해지고 골재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 단지관리자인 해양환경공단 책임 하에 골재업계·지역어민과의 협의사항 이행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단지를 운영키로 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존 골재수급안정대책(17.12)에 따라 바닷모래 공급을 추진하며, 골재업계·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나은중 사무관(☎ 044-201-353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개요

1. 명칭 :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(EEZ) 내 골재채취단지
2. 단지관리자 : 해양환경공단
3. 위치 및 면적 :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 26km 해역, 총 18.85km²
4. 위치도

